금융 지원 확대 - 중소 업체 해외 진출 활성화의 '시금석'

- 건설공제조합의해외보증업무가능해야, 수출입은행에보증 · 융자비율할당도바람직 -

중소 건설업체들은 해외 진출의 애로 사항으로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 부족과 각종 보증 발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다.

최근의 해외건설 시장은 도급형 공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BTO 등민간자본을이용한인프라공사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도급형공사의경우도일부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어, 해외공사수주에있어금융능력이 경쟁력의주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처럼 해외건설 시장에서 금융이 수주경쟁력의주요요소로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해외건설협회와 연세대학교가 2006년 공동 수행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방안」에서중소규모건설업체의해외 진출 애로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미해외시장에진출했던경험이있는기업들은해외공사진출시애로사항으로정부의 금융 및 세제 등 지원책이 부족한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로 각종 보증 발급의 어려움을 들었다.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의경우도해외시장진출시애로사항으로정보수집의어려움을첫번째로들었고, 그 다음으로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들었다.

본고는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보증을 포함한 금융지원현황을파악하고금융 지원확대 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건설공제조합, 해외보증 가능해야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국내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보증에많은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 보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둘째, 공적인수출보증기관인수출입은행의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중을 높이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복보증이란원보증서를발행한은행이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받아대지급하는경우에입게되는손실금액을지급하기로하는약정이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수없기때문에해외발주처에대한직접보증또는현지은행에대한복보증을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취급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제1항 제 2호), 「외국환거래법」상외국환취급업무가허용되어있지 않아직접해외건설보증을취급할수없다. 건설공제조합이해외건설보증을직접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은 ‘ 외국환 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이를영위할수있으며, 외국환업무를영위하는금융기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범위안에서이를영위할수있다 ’ 라고규정하고있다(동법제8조제2항).

수출입은행에 보증 비율 할당하는 방안도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의 애로를해소하기위한두번째방안은 수출입은행이 중소 업체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것이다. 중소업체의해외건설수주실적은 2004년 4억 2,000만 달러에서 2007년 67억달러로 15.7배증가하였다. 그런데수출입은행의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2004년 17억원이고, 2007년에도 476억원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기업 해외건설보증대비중소업체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2004년에는 0.2%였으며, 2007년에도4.7%에불과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 업체의 신용도가낮아중소업체에대해 해외건설보증을기피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수출입은행이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을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 평가를 해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한 보다세밀한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없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중소 업체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것은 정부가중소업체에 대한해외건설보증지원을위한자금을특별히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중소 업체의 해외건설수수 금액에연계하여중소업체에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있다. 중소업체의수주금액에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율을 할당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은중소업체에대한보다세밀한신용평가 제도를구축하고, 해외건설프로젝트에대한 보다세밀한타당성 조사시스템을구축하여중소업체 보증에대한리스크를줄이려고노력할것이다.

수출 신용 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해외건설을 포함한상품과서비스의수출진흥및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출 신용 기관(export credit agency)을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출신용기관으로는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있다. 기본적으로수출입은행은상품과서비스의수출진흥을위한자금을 융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출보험공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보험업무를수행한다.

수출입은행이 수행한 융자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및 2007년에1조97억원이다. 기업규모별로는모두대기업에 대한융자실적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 등 개발 사업이 아닌도급공사와관련된융자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의해외건설사업관련 융자실적은대기업에대한공사대금융자연1조원수준이다. 중소업체와개발사업에대한융자실적은 전무하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은행이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을 기피하는 것과 같이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 업체의신용도가낮아중소 업체에대해해외건설관련융자를기피하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중소 업체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것은해외건설보증확대방안과마찬가지로 정부가 중소 업체에 대한 해외건설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융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기업	4,817	7,730	8,537	10,097
중소기업	0	0	0	0
도급공사	4,817	7,730	8,537	10,097
개발사업	0	0	0	0

자료: 수출입은행내부자료.

시장개척자금 지원 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2003 07)
지원금액(억원)	4	9.5	9.5	9.5	19.5	52
업체수	24	32	32	41	49	105
지원건수	25	35	34	40	45	179
국가수	17	23	21	25	25	52

자료: 해외건설협회.

융자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전체기업융자금액대비중소업체의해외건설융자금액비율을할당(quota)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시장개척자금 규모 너무 작아

해외건설 시장 개척 자금은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수주에실패할경우 매몰 비용이 되므로 중소 업체가 상업적인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국토해양부에서는2003년부터해외 신시장개척을지원하기위하여시장개척자금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다.

시장 개척사업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범위는 첫째,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둘째, 최근5년간수주실적이4억달러미만인국가의프로젝트, 셋째, 미개척다국적기업, 개발업자, 국영석유회사등이발주하는프로젝트, 다섯째, 국토해양부장관이전략적참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프로젝트 등이다(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관리지침제3조).

2003년부터2007년까지시장개척자금의 실적을 살펴보면179건의 프로젝트에52억원을 지원하였다. 시장개척자금은2003년 25건 4억원이던 것이 2004년, 2005년 및 2006년은각각9억 5,000만원이었고, 2007년에는19억 5,000만원으로증가하였다.

이는너무작은규모이다. 미국에도이와 흡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이하 USTDA)이라는기관이있다. USTDA는개발도상국과중진국의경제개발을촉진시키고, 이들국가에대한미국의상업적이해를 증진시키기위한연방정부기관이다.

미국 UDTDA는 먼저 연간 약 5,000만 달러(환율을 1달러 1,000원을 적용할 경우 500억원)를전 산업에 대해지원하고 있고,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만도 약 3,000만달러(환율을 1달러 1,000원을 적용할 경우 300억원)를지원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시장개척자금의연간지원액규모를대폭증액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현재총사업소요비용에대한70% 이내인중소업체에대한 비율을 80%로 높여야 한다. 또한, 중소 업체와 대형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은 60%, 중소기업은90% 이내로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야한다.

공적개발원조 자금 확충 절실

공적개발원조는본래의취지가 해외건설 사업과관련이없지만해외건설의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자금이 있다. 이 자금은 공여국의정부가개도국의경제개발및복리증진을위하여개도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는양자간또는다자간원조자금이다.

ODA 자금을제공하는첫번째기관은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KOICA)이다. KOICA는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전담 실시기관으로1991년4월에설립되었고, 개발 조사사업, 프로젝트 사업, 연수생 초청, 봉사단원파견, 물자공여등의다양한협력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중해외건설과관련이있는자금이개발조사사업이다.

개발도상국은경제개발을위한인프라건설 등 각종국가기반시설구축이긴요하나, 자체 재원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내지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야한다. 이러한자금지원을요청하거나 프로젝트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등이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이단독으로시행하기에는 기술적 ·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 각종 기술용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개발 조사사업이다. 2006년 현재 KOICA 개발조사사업의규모는68억원이다.

또다른ODA 자금중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정책 기금이다. EDCF 자금은 우리나라기업들이신시장에가장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자금이다. 우리나라 EDCF 자금은 전체 지원 규모나 프로젝트별 지원 규모가매우미미한실정으로, 2007년기준으로 5,5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KOICA 개발 조사사업과 EDCF 기금 재원의확충이필요하다.

UN에서도각국정부에대하여GNI 대비 0.7% 이상을 원조에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OECD/DAC 회원국가의 평균 비율도 2006년기준 0.31%이다. 2006년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은 0.05%이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eslee@cerik.re.kr